

## 《 수행평가 》

하이에듀

주제	사회문화 세특 보고서
내용	<p>주제 : 개인과 사회 관련된 시</p> <p>&lt;서론&gt; - 주제 소개, 사회문화에서의 “개인과 사회 구조”</p> <p>사회문화에는 “개인과 사회 구조”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부터, 인간의 사회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등의 내용을 배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사회 구조는 한 사회의 개인과 집단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안정된 틀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행동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를 영위할 수 있고, 사회는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는 반면에, 장례식장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떠들면 비난을 받듯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 구조는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개인은 사회 구조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회 구조에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사회구조에 저항하거나 바꾸고자 하는 행동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유명한 예시로 시민 혁명이 있습니다. 시민 혁명은 봉건제 또는 절대군주제를 타도하고 법률상 자유·평등한 시민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혁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의 구조를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한 다양한 문학적 작품들이 있습니다. 문학적 작품들 중에서 “시”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주요 주제인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시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은 다를 수 있어도 개인과 사회의 구조와 관계를 공통적으로 다루는 시는 많습니다.</p> <p>&lt;본론 1&gt; - 시에서 쓰이는 “개인과 사회 구조”</p> <p>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먼저, 개인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시는 개인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족, 친구, 사회 구성원, 시민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p> <p>두 번째로, 시민 혁명과 비슷한 사회적 압력과 개인의 내면 세계입니다. 시는 개인이 사회적 압력과 규범에 맞서는 내면의 갈등과 혼돈을 다룰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적 기대나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내면적인 고민과 불안을 표현하며, 자아의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탐색하는 과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p> <p>다음으로, 개인의 소외와 사회적 고립입니다. 시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경험을 다룰 수 있습니다. 개인의 외로움, 이해받지 못하는 감</p>

정, 사회적 구분 등을 시적으로 표현하여 사회적인 연결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역사와 문화적 인식입니다. 시는 개인의 역사, 문화적 배경, 가치관 등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공동체의 역사, 문화적 유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본론 2> - 예시1, 운동주, “서시”

다양한 시인들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다뤘고, 그들이 쓴 시들은 이 시에서 김소월은 개인의 내면과 외부 세계와의 갈등을 표현하면서, 한국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현실을 다양한 시각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중 운동주 시인의 두 가지 예시를 분석해보면서 개인과 사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는 운동주의 “눈 오는 지도”입니다. 이 시는 사회적인 압력과 소외감을 느끼는 개인의 심정을 다루고, 개인의 내면 세계와 사회적인 현실 사이의 괴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잃어 버린 역사처럼 (순이가) 가다.'라는 표현은 운동주 시인의 독특한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추상적일 경우, 구체적인 매재(보조관념)를 빌어와 원관념을 구체화하지만, 운동주는 거꾸로 비유합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자화상)', '사랑처럼 슬픈 얼굴(소년)' 등이 그 예시입니다. 또한, “눈이 오는 지도”는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함박눈이 창 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내립니다. '창 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는 창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을 마음속의 추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는 순이가 떠난 후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벽과 천장이 하얗다.'와 '방 안에까지 내리는 눈'에서 하얀 색의 이미지를 '외로움'으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고, 마음 속에 순이가 떠나가는 길(지도)이 그려 집니다. 화자는 그리움의 길을 그만 두지 않고, 눈이 녹으면 발자국 자리마다 그리움의 꽃을 피워 일구고 그 꽃 사이로 순이를 따라 가겠노라 말합니다. 맨 마지막의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의 '눈'은 내면의 그리움을 표상합니다. 결론적으로, '창 밖'과 '창 안' 그리고 '창 밖에 오는 눈'과 '창 안(마음)에 오는 눈'의 대립 구조에 의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으며, 시각적 이미지의 효과적 배치에 의해 평평 쏟아지는 그리움의 눈꽃을 통해 개인의 내면 세계와 사회적인 현실 사이의 괴리를 묘사합니다.

#### <본론 3> - 예시2, 운동주, “서시”

서시는 한국 시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시에서는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철저하게 양심 앞에 정직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내부적 번민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완전하며 갖가지 그늘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험사리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버리고 세속적 삶에 타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서두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선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산다는 것은, 당시 일본에게 식민지였던 시대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운동주 시인은 이에 “반성”으로 답합니다. 그의 괴로움은 자신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 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잘못을 저질러서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결백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에게 있어 부끄러움이란 그의 양심의 뜨거움에 비례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는 개인의 내면 세계와 사회적인 현실, 그리고 근대 도시의 모순과 갈등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넉 줄은 서시의 가치를 더욱 높게 해줍니다. 밤 하늘의 맑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걷겠다는 담담한 결의는, 자칫 무모한 번민에 그칠 수도 있는 양심의 자각을 성숙한 삶의 의지로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극히 담담하면서도 의연한 결의의 태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 - 느낀 점, 새로 알게 된 점

느낀점 작성하시고,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개인과 사회의 구조”를 한국 시를 통해 알아보고 예시를 통해 분석한 점을 새로 알게 된 점으로 쓰시면 됩니다.

#### 자료 1. 눈 오는 지도 운동주 해석 해설 내용 배경 특징 주제 분석

눈 오는 지도 운동주 해석 해설

눈 오는 지도 운동주 해석 해설입니다. 이 작품은 운동주의 온화한 내면과 유연한 감수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이다. 이 시의 중심 모티프는 '순이'와의 이별이다. 이별의 아침, 마치 자신의 막막한 심정을 대변하듯이 함박눈이 내린다. 눈에서 꽃으로 꽃에서 다시 눈으로 변주되는 화자의 순결한 내면의 이미지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환기하며 사랑의 아름다움과 지속성을 일깨운다. 화자의 눈길은 순이의 발자국을 쫓아 눈이 내리는 지도를 더듬어 간다. 지도와 편지는 함께 연결되는데 편지 봉투에 어느 거리 → 어느 마을 → 어느 지붕 밑 인지를 적어야 편지가 순이에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화자는 순이가 가는 곳을 모르므로 그녀에게 부칠 편지는 화자의 마음 속에만 남아 있게 된다. 결국 순이에게 일러 둘 말이 적힌 편지는 순이가 사는 지붕 밑으로 가지 못한다. 현실적으 순이를 찾아갈 방법을 찾지 못한 시적 화자는 상상력의 세계를 통해 순이의 발자국을 쫓아간다.

눈 오는 지도 운동주 주제  
눈 오는 지도 운동주 주제 입니다.

- ◆ 화자 : 순이와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워 하는 사람
- ◆ 주제 : 순이를 그리워하는 순수한 마음(이별의 안타까움과 간절한 사랑)

[시상의 흐름(짜임)]

- ◆ 순이가 떠난다는 ~ 덮인다. : 순이가 떠남으로 인해 생긴 화자의 막막한 심정
- ◆ 방 안에까지 ~ 따라갈 수도 없다. : 순이가 떠난 상황에 절망함.
- ◆ 눈이 녹으면 ~ 눈이 내리리라. : 순이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

눈 오는 지도 운동주 내용 요약  
눈 오는 지도 운동주 내용 요약 입니다.

순이(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 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장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 버린 역사처럼 훌훌히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로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쫓고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어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눈 오는 지도 운동주 배경 특징  
눈 오는 지도 운동주 배경 특징 입니다.

- ◆ 성격 : 서정적, 연가적, 애상적, 산문적
- ◆ 표현

- \*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
- \* 창 밖과 방 안의 이미지가 연결됨.(창 밖의 눈 : 실제의 눈 ↔ 방 안의 눈 : 내면의 눈)
- \*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소재(눈, 발자국, 꽃)
- \* 청자(순이)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
- \* 줄글 형식의 산문적 운율
- \* 의문형과 영탄형으로 고조된 정서(안타까움과 그리움)를 표출함.

◆ 중요시어 및 시구풀이

- \* 순이가 ~ 지도 우에 덮인다. → 시적 대상이 떠나야 하는 상황 제시, 배경과 슬픈 정서 제시
- \* 함박눈 → 기존의 이미지(기쁨, 환희, 포근함)와 대비되는 소재
- \* 지도 우에 덮인다. → 눈이 지도 위를 덮음으로써 찾아갈 수 없게 만듦.
- \* 지도 → 이 세상
- \* 방 안을 돌아다보아야 아무도 없다. → 대상의 부재로 인한 외로운 상황
- \* 벽과 천장이 하얗다. → 슬픔의 정서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함.
- \* 잃어 버린 역사처럼 → 시적 대상(순이)의 실체를 '조국'으로 보기도 함.
- \*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 '어느'의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
- \* 눈 → 장애물의 역할과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는 소재

눈 오는 지도 운동주 분석

눈 오는 지도 운동주 분석입니다.

1939년 3월 12일에 완성된 산문시로, 순이에 대한 그리움을 '눈', '발자국', '꽃' 등의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감미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순이'의 상징적 의미나 그 떠나는 이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굳이 말한다면, 훌훌히 떠나는 순이의 행위를 비유한 '잃어 버린 역사'를 단초로 하여 순이를 '조국'으로 해석하는 역사주의적 관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시 전체의 이미지가 그것을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다.

한편, '잃어 버린 역사처럼 (순이가) 가다.'라는 표현은 운동주 시인의 독특한 비유이다.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추상적일 경우, 구체적인 매재(보조관념)를 빌어와 원관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상례이나 이 시인은 거꾸로 비유를 한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자화상)', '사랑처럼 슬픈 얼굴(소년)'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함박눈이 창 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내린다. '창 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는 창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을 마음속의 추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는 순이가 떠난 후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벽과 천장이 하얗다.'와 '방 안에까지 내리는 눈'에서 하얀 색의 이미지를 '외로움'으로 인식하게 해 준다. 이렇게 마음의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고, 마음 속에 순이가 떠나가는 길(지도)이 그려진다.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그 길이 분명치는 않으나 어느덧 화자는 마음 속 순이의 조그만 발자국을 따라간다. 하지만 펄펄 쏟아지는 눈이 순이의 발자국을 덮어 버리고 만다.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나 화자는 그리움의 길을 그만 두지 않는다. 눈이 녹으면 발자국 자리마다 그리움의 꽃을 피워 일구고 그 꽃 사이로 순이를 따라 가겠노라 말한다. 맨 마지막의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의 '눈'은 내면의 그리움을 표상한다.

'창 밖'과 '창 안' 그리고 '창 밖에 오는 눈'과 '창 안(마음)에 오는 눈'의 대립 구조에 의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으며, 시각적 이미지의 효과적 배치에 의해 펄펄 쏟아지는 그리움의 눈꽃이 독자의 마음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작품이다.

출처:

<https://gamecoinkorea.tistory.com/entry/%EB%88%88-%EC%98%A4%EB%8A%94-%EC%A7%80%EB%8F%84-%EC%9C%A4%EB%8F%99%EC%A3%BC-%ED%95%B4%EC%84%9D-%ED%95%B4%EC%84%A4-%EB%82%B4%EC%9A%A9-%EB%B0%B0%EA%B2%BD-%ED%8A%B9%EC%A7%95-%EC%A3%BC%EC%A0%9C-%EB%B6%84%EC%84%9D>

## 자료 2. 운동주의 시 서시,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서시 내용의 간략 정리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주제로 한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입니다.

간결한 언어 속에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구절이 비상한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젊은이의 정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는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철저하게 양심 앞에 정직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내부적 번민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보여준다라는 표현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 앉은 어느 외로운 밤에 이 시의 언어를 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의 두 행에서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오래 살아 봄 사람의 달관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어 본 나이 지긋한 사람이라면 감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사람이 부끄럼 없이 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자신 역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하며 갖가지 그늘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사리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버리고 세속적 삶에 타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서두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요. 더욱이 삶 자체가 치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식민지 상황 아래서 그것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윤동주 시인은 이에 대해 날카로운 반성의 언어로 답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그의 괴로운은 자신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 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잘못을 저질러서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결백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에게 있어 부끄러움이란 그의 양심의 뜨거움에 비례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동주의 서시가 보다 높은 가치를 이루는 것은 다음의 녁 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밤 하늘의 맑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걷겠다는 담담한 결의는, 자칫 무모한 번민에 그칠 수도 있는 양심의 자각을 성숙한 삶의 의지로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담담하면서도 의연한 결의의 태도를 느끼게 합니다.

출처: <https://worldstory1.tistory.com/8>